



# ‘세종대왕의 꿈’ 캠페인 안내

**목적** · 문해의 의미와 가치를 상기하고 문해교육에 대한 참여 촉진

**주제** · 세종 대왕의 꿈

**방송  
내용**

**1편** 글을 몰라 책을 읽어 달라는 손자가 너무 무섭다는 이야기  
(2013년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수상작 ‘무서운 손자’ 사례)  
방송기간: 2015. 8. 10 (월)~8. 21 (금) / 오전 11시 30분 (일 1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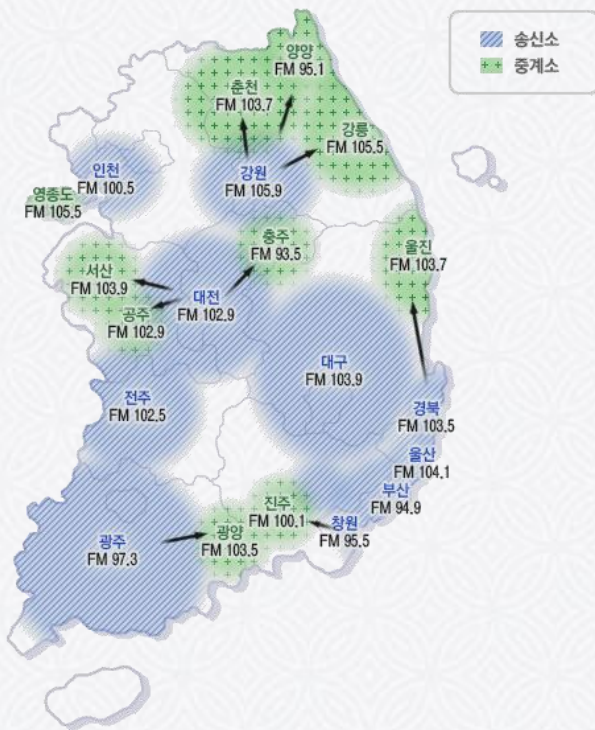
**2편** 문해교육 학습자에서 문해교육 교사로 (이성자 문해교사 사례)  
방송기간: 2015. 8. 22 (토)~9. 3 (목) / 오전 11시 30분 (일 1회)

**3편** 백성들이 자유롭게 글자를 사용하여 자신만의 꿈을 갖고  
행복하게 살기 바랬지만 아직도 실현하지 못한 세종대왕의 꿈  
방송기간: 2015. 9. 4 (금)~9. 19 (토) / 오전 11시 30분 (일 1회)

**청취  
방법**

- TBN 지역별 라디오 방송
- 실시간 인터넷 방송 (주소: <http://www.tbn.or.kr>)

| 주파수 안내 |



1편

글을 몰라 책을 읽어 달라는 손자가 너무 무섭다는 이야기  
(2013년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수상작 ‘무서운 손자’ 사례)

“무서운 손자!

손주가

책을 가져와 읽어달라고 하니 무서워 죽겠다.

말로 하는 이야기라면, 손으로 하는 음식이라면

손주놈이 해 달라는대로 다 해줄 수 있으련만

손주놈의 손에 들린 동화책이 무서워

부엌에서 나가질 못한다.”

여든 살이 넘어서야 글을 배운

강춘자 할머니의 작품입니다.

이제는 손자와 함께 동화책을 읽으신다고 합니다.

문해교육은 가족과 소통하게 해 줍니다.

글자를 통해 행복한 삶을 꿈꾸는 도전자 여러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1600-6759로 전화하시면

가까운 교육기관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세종대왕의 꿈 캠페인!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함께 합니다.

2편 문해교육 학습자에서 문해교육 교사로 (이성자 문해교사 사례)

“안녕하세요? 문해교사 이성자라고 합니다.

어린 시절 가난 때문에 집안 살림을 도맡다 보니

마흔 살이 돼서야 늦깎이 학생이 되어

문해교육을 시작했습니다.

문해교육을 통해 검정고시도 합격하고

대학교까지 졸업한 저는 복지관의 문해교사가 됐습니다.”

가족에게도 숨기고 싶었던 비문해는

나의 잘못도 부모의 잘못도 아니었구요.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고 싶지 않아요.

글을 모르시는 분들!

어려운 환경 때문에 학교를 포기하셨던 분들!

지금이라도 용기를 내서

주변 문해교실로 배우러 오세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1600-6759로 전화하시면

가까운 교육기관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세종대왕의 꿈 캠페인!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함께 합니다.

3편

백성들이 자유롭게 글자를 사용하여 자신만의 꿈을 갖고  
행복하게 살기 바랬지만 아직도 실현하지 못한 세종대왕의 꿈

1446년에 세종대왕은  
나랏말이 없는 백성들을 위해  
훈민정음을 반포했습니다.

하지만 569년이 지난 오늘에도  
세종대왕의 꿈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한글을 읽지 못하는 성인이  
260만명이나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성인문해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국에 3만명의 늦깎이 학생들이  
글을 배우고 있는데요.  
글 배우는 행복을 누리고 싶은 여러분!  
주변 문해교실로 배우러 오세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1600-6759로 전화하세요.  
가까운 교육기관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세종대왕의 꿈 캠페인!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함께 합니다.